

‘대기오염 세계 최악’ 인도 뉴델리, 노후 차량에 연료 안 판다

휘발유 차량 15년·디젤 차량 10년 넘으면 연료 안돼

주유소마다 경찰관 단속…11월부터 위성도시로 확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로 꼽히는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노후 차량에 연료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뉴델리에서 노후 차량 대상 연료 판매가 금지됐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운행한 지 15년, 디젤 차량은 10년이 넘었다면 연료를 넣을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뉴델리에서 노후 차량을 사실상 퇴출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뉴델리 주유소 곳곳에는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배치됐고,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확성기도 설치됐다. 뉴델리 한 주유소에 배치된 교통 경찰관은 AFP에 “노후 차량이 들어오면 바로 폐차업자에

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부터 뉴델리 인근 위성 도시들로도 확대될 예정이며, 대상 지역 전체 인구는 3천200만명가량이다. 스위스 공기 질 분석업체인 아이큐에어(IQAir)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 전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뉴델리는 지난해 전 세계 수도 가운데 대기질이 가장 나쁜 곳이었다. 뉴델리의 지난해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91.6㎍/㎥를 기록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기준인 5㎍/㎥보다 18배 수준으로 높았다. 지난해 11월 가장 심했을 당시 PM2.5 농도는 980㎍/㎥를 기록해 WHO가 권고하는 일일 최대

치(15㎍/㎥)의 66배 수준에 달했다. 세계에서 권위 있는 의학 학술지 중 하나인 랜싯은 2019년 인도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167만명이었다고 분석했다. 인도 대법원은 이미 2018년 휘발유 차량은 15년, 디젤 차량은 10년이 넘은 경우 뉴델리 도로에서 주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지만, 현재 노후 차량 600만 대가 운행 중이다. 노후 차량뿐만 아니라 석탄 화력 발전소와 공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매연도 많고 농촌에서 논밭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해 대기오염이 더 나빠지는 추세다. 특히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는 매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뉴델리는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린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안개 살포 차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도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내진 못했다.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에펠탑 옆 바르소비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EPA=연합뉴스

히토류 웃돈까지…중국발 공급 불안에 업체들 비상

“韓 기업들, 베트남산에 20% 웃돈 낼 용의”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히토류 공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히토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으며 최대 20%의 프리미엄(웃돈)을 주고서라도 히토류 자석을 구매하려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한국 업체 노바텍의 고객사들의 경우 베트남산 히토류 자석에 대해 15~20% 웃돈을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히토류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히토류 자석은 전기차·풍력 터빈 등에 사용된다. 로이터는 회사 관계자들을 인용해 노바텍이

현재 베트남 공장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공장은 베트남 현지 협력 업체가 가공한 히토류를 이용해 내년 초 히토류 자석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업체 네오퍼포먼스머티리얼즈는 에스토니아에 히토류 자석 공장을 건설하고 5월 생산에 들어갔는데, 수년간 이어졌던 고객사 확보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했다. 중국 이외 국가에 공장을 지을 경우 생산 비용 상승이 불가피한데, 고객사들이 이에 따른 웃돈을 지불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우리 시설을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수요를 맞추지 논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에는 대당 2~4kg의 히토류 자석이 들어가는데 중국산 대비 kg당 10~30달러 웃돈을 지불하려는 고객들이 줄을 섰다는

것이다. 히토류 자석 원료인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의 경우 중국산이 kg당 62달러 정도인데, 한 히토류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들은 제3국산에 대해 80달러도 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히토류 부족으로 공장 가동이 멈추는 것보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의 히토류 가공업체 ‘레스코먼메탈즈’(LCM) 관계자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다수 기업이 중국을 대체할 히토류 자석 공급처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히토류 자석 시장의 90%를 장악한 중국 밖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려면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업계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日피폭자 건강수첩 보유, 10만명 하회…평균 나이 86세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80년이다 돼 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교부한 피폭자 건강수첩을 보유한 생존자가 10만명 아래로 줄어들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건강수첩을 보유한 피폭자 수는 9만9천130명으로, 1년 전보다 7천66명 줄었다. 피폭자 건강수첩 보유자 수는 1980년도(1980년 4월~1981년 3월) 37만2천264명을 정점으로 줄

기 시작해 2013년도에 20만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이번에 10만명을 처음으로 하회했다. 지난 3월 말 현재 지역별 보유자 수는 히로시마 4만8천310명, 나가사키 2만3천543명, 후쿠오카 3천957명 등 순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86.13세로, 1년 전보다 0.5세 높아졌다. 피폭자 건강수첩은 1957년 시행된 옛 원폭의료법에 의해 교부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1994

년 공포된 피폭자원호법에 의해 건강수첩 보유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수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원자폭탄 투하 당시 피폭 지역으로 정부가 인정한 지역 바깥쪽에서 살고 있어 건강수첩 교부가 거부된 사례도 있다. 실제 피폭을 주장하는 일본인이 현재도 일본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펠탑 보러 왔는데…폭염에 관광객 입장 금지령

유럽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프랑스 관광 필수 코스인 파리의 에펠탑 입장이 제한되는 등 곳곳에서 휴교령을 포함해 야외활동 금지령이 내려졌다. 미 CNN 방송, 영국 가디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프랑스 당국은 전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일까지 이틀간 에펠탑 관광객의 폭대기 접근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에펠탑 홈페이지에는 “불편을 끼쳐 사과드립니다. 기온이 높은 기간에 햇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시고 정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실 것을 당

부드린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다. 프랑스는 또 이날 전국적으로 1천300개 공립 학교가 전체 또는 부분 휴교하기로 했다. 벨기에 브뤼셀의 관광 명소인 아토미움도 이날부터 이틀간 관람객 입장을 제한했다. 한 관계자는 “폭염에 따라 아토미움 내부 기온은 향후 며칠간 특히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양대 산업 거점인 롬바디, 에밀리아로마냐에서 오후 12시30분부터 4시까지 야외 근무가 금지됐다. /연합뉴스

英법원, 58년전 성폭행·살인 혐의 92세 노인에 종신형

영국에서 1967년 여자 노인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92세 노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브리스톨 형사법원은 1일(현지시간) 라일런드 히들리(92)가 34세였던 1967년 잉글랜드 서부에서 혼자 살던 노인 루이자 던(당시 75세)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를 인정해 최소 복역 기간 20년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데릭 스위팅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과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피고인은 영원히 석방되지 못하고 교도소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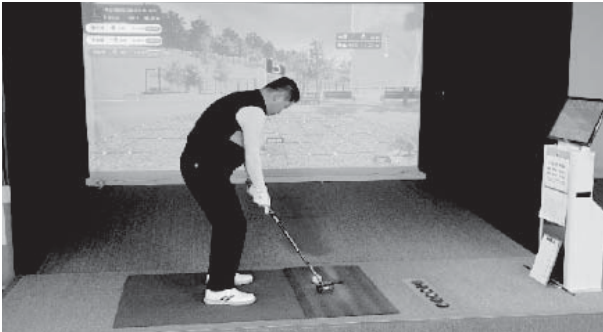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 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 샵
(골프채, 각종용품, 용구)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